

일 주 문



제1회 통도 연등축제 어울림마당 양산 통도사 주지 원상 스님은 4월 26~28일 하북면 일대에서 제1회 통도 연등축제 어울림마당을 진행한다.



제8회 강화 게이트볼 대회 강화 전등사 주지 범우 스님은 4월 12일 오전 8시 강화군 길상면 공설운동장에서 제 8회 강화게이트볼 대회를 연다. (032)937-0125



안동청소년문화센터 개관식 고운정소년재단 이사장 호성 스님은 4월 11일 오전 10시 안동청소년문화센터 개관식을 개최한다.



제19회 부처님그림 그리기 대회 박찬수 여주 목아박물관 관장은 4월 25일 목아박물관에서 조계종 불촉위와 함께 제19회 전국 어린이 부처님 그림 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



'지구촌에 피운 우담바라' 전 박대원 KOICA이사장은 4월 9일 성남 지구촌체험관에서 '지구촌에 피운 우담바라' 전을 개최했다.



직장직능전법단 CEO강연회 류병선 승보공양추진위원장(영도벚꽃 대표이사)은 4월 11일 직장직능전법단 CEO초청 특별강연회에 강사로 나선다.



부산 대불청 47주년 기념법회 박찬수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부장은 4월 14일 오전 10시 해남 대불사에서 전남·전북지부와 함께 창립 47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법륜 스님 초청 강연회 노희경 정토회 길벗 회장은 4월 8일 여의도사학연금회관에서 법륜 스님 초청 강연회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몇가지 질문'을 개최했다.

김태우 前통일연구원 원장, 동국대 석좌교수로



동국대는 김태우 前통일연구원 원장(62·사진)을 행정대학원 석좌교수로 임명했다. 김태우 前원장은 미국 뉴욕주립대(SUNY Buffalo)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고,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 대외협력실장, 국방현안연구위원장 등을 거쳐 2011년 8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총리실 산하 통일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했다. 현재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안보통일연구단체인협회 공동대표, 새누리당 북핵안보전략특별위원회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종단 미래 제시할 연구소 되겠다”

정책모임 화엄광장 3일 출범 회장 성직 스님

“화엄광장은 계파를 넘어 종단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기탄없이 펼칠 수 있는 광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월 3일 창립한 정책연구모임 화엄광장 초대회장으로 선출된 성직 스님(조계종 중앙총회의원)은 기자회견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포부를 밝혔다.

스님은 정책연구모임으로서의 면모를 다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실제 화엄광장은 주요 사업 방향으로 △종단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연구 △종단 운영 및 사회적 트랜드 전략 분석 △사찰 경영 활성화·특성화 방안 연구 및 분석 △사회적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 △사회와 종교성 연구 및 전략 분석 △불교 관련 각종 사회 의제 연구 및 분석 △국제거주 활동 및 국내 사회활동 전개 등을 추진한다.

성직 스님은 “화엄광장은 사찰경영, 교구발전, 복지, 문화 등 8개 연구분과를 설치하고 다양한 현안을 연구할 것이다. 분과는 주의를 보고 확대할 수 있다”며 “각 분야별로



계파 아닌 종단 발전 모임 사찰경영 등 8개 분과 연구 신진학자·전문가 참여 유도

신진학자와 전문가를 초빙해 격월간 포럼도 진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화엄광장 창립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자문위원인 교구본사주지 17명을 비롯해 지난해 해체를 선언한 종책 모임 화엄·법화회 소속 중앙총회 의원들이 전부 회원으

로 참여했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종책 모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 하지만 성직 스님은 순수한 연구모임을 재차 강조했다.

스님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줄을 서는 ‘계파’는 잘못된 것”이라고 전제하며 “의정활동을 혼자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뜻 있는 총회의원 스님들이 모여 종책을 논의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종진 교수나 재가불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본사주지 스님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다각적으로 종현종법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화엄광장을 창립하게 됐다”며 “창립선언문에 밝혔듯이 계파정치를 청산하고 특정계파에 얽매지 않을 것이며, 새로운 종책대안을 제시해 종도들에게 존경받는 화엄광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선 창립총회에서 화엄광장은 고문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추대했으며, 회장에는 성직 스님을, 정책연구위원장에는 동국대 교수 보광 스님을 각각 선출했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도법 스님 美 해방신학자들과 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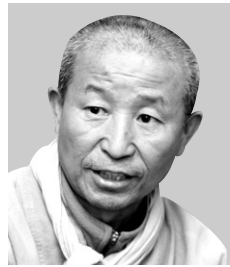
오는 17~20일 ‘국제 불교-기독교 컨퍼런스’서 발표

조계종 자성교과생결사추진본부장이자 생명평화운동가인 도법 스님(사진)이 미국 해방신학자들과의 대화에 나선다.

도법 스님은 오는 4월 17일부터 25일까지 미국 뉴욕 유니언 신학대학원 주최의 ‘국제 불교·기독교 컨퍼런스- 깨달음과 해방: 참어불교인과 해방신학자의 대화’에 참석하기 위해 도미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진제 스님과 종교간 대화를 나누어 온 세계적인 종교학자인 폴 니터(Paul F. Knitter) 교수의 정년 퇴임을 기념해 열리며, 도법 스님 외에 법륜 스님, 지정 스님, 정현경 교수 등도 참석한다. 통역에는 뉴햄프셔대 교수 헤민 스님이 맡는다.

스님은 18일 저녁 ‘나의 불교수행, 화엄세계관과 생명평화운동 - 지금 당장 붓다로 살자, 붓다로 행동하자’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20일까지 진행되는 컨퍼런스 일정 전체의 토론과 의식에 참여한다.



도법 스님은 기조강연과 토론을 통해 “21세기 절체절명의 화두는 ‘지구촌 생명평화 공동체’이며 종교인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할 때 비로소 종교가 종교다워진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지구촌 생명평화 공동체’의 사상적 바탕으로 한 ‘화엄경’의 본래부처론과 동체대비론도 신학자들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법 스님은 25일까지 미국 뉴저지 소재 프린스턴 대학교의 주요 종교지도자들과 간담회에 참석하고 일정을 마무리한다.

결사추진본부는 “대안적 불교수행공동체, 종교 실천 커뮤니티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종일 기자

정상영 회장, 동국대에 100억 기부

“종립 동국대 건축이념 펼쳐는데 써달라”

정상영 KCC 명예회장(사진)이 동국대 제2건학기금으로 사재 100억원을 쾌척했다.

정상영 회장의 이번 기부는 개인이 낸 기부금으로는 동국대 사상 최대 규모다. 정 회장은 오랜기간 동안 꾸준한 모교에 관심을 가지고 후원을 이어온 것으로 유명하다.

정 회장은 1996년 발전기금 5억원을 기부한 것을 비롯해, 1999년 법과대 발전을 위해 3000만원을 기부했으며, 2011년 김희옥 총장이 취임하면서 제2건학운동을 펼치자 20억원을 선뜻 기부해 화제를 모았다.

당시 정 회장은 “동문 후배이며 법조계에서 신망이 높았던 김희옥 총장이 취임 3개월 만에 2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제2건학기금을 모금하는 것을 보고 앞으로 모교가 크게 발전할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설레인다”고 밝히며 많은 동문들이 모교에 대한 기부에 동참해달라는 덕담과 격려를 남긴 바 있다.



정상영 회장은 모교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11년 12월, ‘자랑스러운 동국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정 회장은 학교발전을 위한 거액의 기부뿐만 아니라 후배들을 향한 작은 격려에도 관심을 쏟아왔다. 2011년 12월에는 국가고시 합격생 및 준비생들을 한데 모아 격려와 함께 격려금 1억원을 전달했다. 이어 2012년 3월과 12월에도 두 차례에 걸쳐 국가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진출하는 후배들을 격려하기 위해 2억원을 기부하며 각별한 애정을 표시하기도 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차정부 여성 인사 잇달아 예방

조윤선 장관·변영섭 청장, 자승 스님과 환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4월 4일 예방한 조윤선 장관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



자승 스님이 4일 변영섭 문화재청장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여성 인사인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과 변영섭 문화재청장이 잇달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했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4월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점검실에서 자승 스님을 예방하고 환담을 나눴다.

자승 스님은 “이번 맞닿이 부부들에게 ‘국가가 엄마가 돼 주겠다’는 정책 기조를 잘 유지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높이기 위해 전 부처에서 실천하고자 한다. 종단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에 신경을 써달라”고 밝혔다.

같은 날 4일 예방한 변영섭 청장은 자승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폐사지 관리가 문화재청의 주요 업무이다. 미륵사지와 황룡사지 등에 대해 가시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불자로서 성심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종일 기자

김유나 씨, 한국현대미술대전 대상

해남 대흥사 ‘영산회괘불화’ 현대적 해석으로

동국대 불교미술전공 석사과정에서 재학 중인 김유나 씨(사진)가 제34회 대한민국 현대미술대전 민화·불화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김유나 씨는 한국현대문화미술협회가 개최하는 제34회 대한민국 현대미술대전에서 작품 ‘영산회괘불화’로 민화·불화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영산회괘불화’는 18세기 호남지역에서 활동하던 대표적 화승인 색민(色旻) 스님이 으뜸화원을 맡아 조성한 해남 대흥사 영산회괘불화(보물 제1552호)를 모본으로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작품이다.

동국대 불교미술학과를 졸업하고 석사과정에서 재학 중인 김유나 씨는 현재 한국불교미술협회와 동국불교미술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시상식은 5월 10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노덕현 기자

삽한 대승불교조계종

중 정 예 하 은 파

- 원로원장 대호 원로부원장 만송, 경월 중앙총회의장 만송 부의장 명현 사무처장 현담 중앙총회의원 만송, 해암, 화산, 경월, 정암, 법승, 선우, 근파, 명현, 대전, 법광, 한파, 종원, 선산, 정해, 법공, 법인, 유초, 무애, 연지, 도일, 성각, 인각, 혜원, 만법, 현담. 총무원장 해암 부원장 근파 총무부장 도일 재무부장 목암 교무부장 성각 규정부장 인각 사회부장 해원 포교부장 법광 재무국장 득초 규정국장 진공 부산교구총무원장 유초 경남동부교구총무원장 명현 경남서부교구총무원장 만법 중부교구총무원장 정암

◇입증을 환영합니다. 본 종단은 사단법인 등록 제184721-0000861호로 등록되어 있는 종단입니다. 유사 종단에 유의하십시오. ◇입증 구비서류 ·분종 입증 신청서(총무원 비치, 홈페이지 출력가능) 요청서 우편 발송 ·주민등록등본 1부 ·타 종단 승려증 사본 1부 ·사진 1장 ·사찰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대장등본, 임대차 계약서 1부 ·사찰 전경사진 (내, 외부) ◇문의 및 접수처: (사)대승불교 조계종 총무원 주소: 부산시 동구 초량2동 423-16번지 301호 전화 051)527-7733, 5431 / 팩스 051)527-5432 부산교구총무원 051)468-6790 휴대폰 010-4133-0333 경남동부총무원 055)291-7263 휴대폰 011-845-2446 경남서부총무원 055)884-1017 휴대폰 010-9099-5859 중부교구총무원 043)648-8942 휴대폰 011-594-2595

해원정사 추모원 (납골당) 안내

천하의 명당

예로부터 집터를 잘 골라야 집안이 번성하고, 조상의 묘터를 잘 골라야 후손까지 번성한다고 하였습니다. 해원정사 추모원은 일주문성 삼봉산을 마주한 자궁혈에 위치하여 모든 조건을 고루 갖춘 명당 중의 명당으로, 자손들은 수명장수하고, 하는 일에는 최고의 위치까지 오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지리적 편의

해원정사 추모원은 광주 시내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유족들이 언제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조량 좋고 쾌적하며 산세의 푸근함이 느껴지는 이곳에서 조상의 은덕을 기리고 후대의 번영을 기원함으로써, 가신 분과 보내시는 분 모두가 함께 안락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도량의 복덕

매일 도량에 올려퍼지는 목탁과 염불소리는 돌아가신 영가의 천도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유가족에게도 큰 복덕이 되어 돌아오며, 후손들의 삶을 편안하게 합니다.

해원정사 추모원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내남동 385번지 전화 (062)234-4576, 222-7979 / 인터넷 주소: www.해원정사.kr